

교회목표

- 1. 천국시민 양성
- 2. 만민에게 전도
- 3. 빈약한 자 구제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요한복음 11장 40절)

순례자

Pilgrim

2010년도 표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요8:29, 시37:4)

행동지침

- 1.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전하는 교회
- 2. 성수주일을 철저히 실천하는 교회
- 3. 바른신앙, 바른신학, 바른생활의 모범이 되는 교회

† 발행인: 이종윤 † 발행처: 대한예수교 장로회 **서울교회**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210 전화:(02)558-1106 팩스:(02) 558-2107 www.seoulchurch.or.kr

어린이 주일 메시지

자녀를 위한 기도



이종윤 목사

주님!
언약의 자손된 저들 위에
대지를 적시운 이슬 같이
맑고도 신선한 은총 펴사
새 영을 날마다 부으소서

주님!
천국의 자녀된 저들 위에
하늘 나는 독수리 같이
희망과 권능의 은사 주사
광명의 새 시대 맡기소서

주님!
우리집 보배된 저들 위에
하늘 별 바다 모래 반짝이듯
평강의 왕 메시아 복 내리사
은 세상 빛 되게 하옵소서

2010년 어린이 주일에
목사 이종윤



이종윤 목사 방송설교

- TV: 케이블 CH 42(CTS,기독교TV) 매주 월 오후 1시30분
- 위성 CH 412(CBS TV) 매주일 밤 9시(각 지역별로 케이블 TV로도 시청가능)
- KBS(코리아 위성방송) 제3채널(북중미 지역 해외방송) 매주 월 오후 1시30분(한국시간)
- 라디오: HLKY 98.1 MHz(기독교 방송) <성서강해> 매주 화 오전 5시30분
- HLKX 106.9 MHz(극동 방송) <생명은 빛으로> 매주 금 오전 9시
- 인터넷: 기독교 TV (<http://www.cts.tv>)
- 기독교 방송 (<http://www.cbs.co.kr>)
- 중국어 인터넷방송 (<http://www.c-highway.com>)

2010년 홍해작전 준비 시작되다

세 분 강사가 새벽강단을 인도해

2010년 홍해작전 준비가 시작되었다. 이번 홍해작전은 6월6일(주)부터 시작되어 6월25일(금)까지 20일간 계속된다.

이번 홍해작전은 세 분의 강사가 새벽강단을 인도하게 된다. 이번 홍해작전을 인도할 세 분 강사는 6월6일(주일)-12일(토) : 송용원 목사(연세대, 장신 신대원(M.Div., 예일대 신대원(Th. M.), 에딘버러대(Ph.D.

Candi), 6월12일(주일)-19일(토) : 오택교 목사(총신대, 총신 신대원(M.Div., Th.M.), 웨스트민스터(Ph.D.) 합신 전 총장), 6월20일(주일)-25일(금) : 조진모 목사(연세대, Trinity Christian College)웨스트민스터(M.Div., Th.M., Ph.D.) 합신대 교수가 각각 인도할 예정이다.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가 요청되는 지금 모든 성도들이 새벽을 깨워 기도하기 바란다.

아가페타운 (사)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에 귀속

우리교회 당회는 지난 4월25일(주일) 당회시간에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 하천리에 위치한 아가페타운을 우리교회 부설 법인인 (사)한국기독교문화진흥원에 귀속시켜 운영하기로 하였다.

장한 어머니 상 수상자

우리 교회는 국가적으로 인구감소에 대한 대안책으로 수년전부터 자녀를 셋 낳는 가정의 어머니를 장한 어머니로 선정하고 셋째 또는 넷째 아이의 20년후에 찾는 장기 장학금 통장을 시상한다.올해 장한 어머니는 다음과 같다.

- 5교구 한상연 집사 (정원일 집사)
- 5교구 강해진 집사 (안인선 집사)
- 6교구 김수연 집사 (송상준 집사)
- 11교구 전춘화 성도 (한석호 성도)

2010년 4월 학습·세례식 거행

서울교회 당회 주관으로 지난 4월28일 수요일 1,2부 예배시 올해 두번째 학습·세례식이 있었다.

서울교회는 짝수달(격월) 3째주 수요일 1,2부예배시에 학습·세례식을 거행하고 있다.

각 교구와 다락방 및 각 교회학교에서는 학습·세례 대상자를 적극 추천하여 주기 바란다.

사전교육 및 신청절차는 새가족부 세례준비반(609호)에서 담당하고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세례준비반 인터넷 카페(서울교회 홈페이지)→e공동체→세례준비반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금번 세례/개종/입교/학습/유아세례자는 다음과 같다.

세례자 : 강윤향 김숙희2 김원경1 박순천 박재복 이상룡 이영숙6 이지인 정유정3

개종자 : 윤갑란

입교자 : 명수연 안재인 유지웅 허효주

학습자 : 고은혜2 김광래 김만운 김철호1

박내길 방지수 서영실 안미애 안순애 이금정 이득원 이영자9 이정애3 이혜옥1 정소연1 차소현회경숙3

유아세례자 : 송우진 오예나 이시우1 우준박 옥 김구진 임영숙 고경순 김보경 김길자 강창숙 임인선 김호수 이수현 김필림 이경의 이근의 한은미 이경실 박예신 박순단 홍건표 진경자 주임옥 양길순 강영진 강은자 윤금자 이정임 이태인 최순례 김애순

1부 예배 피아니스트 교체 조현정 선생으로

1부 예배 피아니스트인 백승희 집사가 일신상의 이유로 사임을 함에 따라 교회는 조현정 선생을 후임으로 세웠다.

조현정 선생은 국민대학교 음악학부(피아노과), 동 대학교 교육대학원 음악교육학과를 졸업하고 현재 서울음악교실과 중등부 반주를 담당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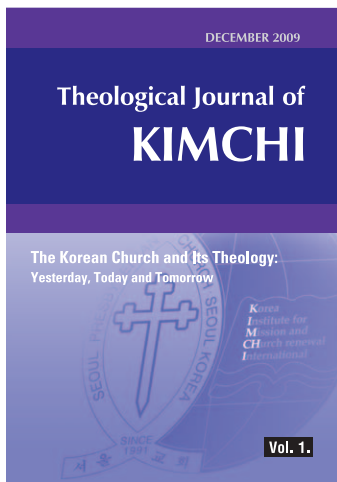
'Theological Journal of Kimchi' 폭발적인 반응

우리교회에서 최근 출판하여 전세계 신학대학원 도서관과 일반 대학 도서관, 세계 우수 도서관에 기증된 'Theological Journal of Kimchi'가 기증처로부터 이구동성으로 예약 구독(subscription) 신청을 해오고 있다.

다른 신학 학술지와 달리 한국 교회의 성장과 문화에 대한 집중

특집 형식으로 영문으로 엮은 창간호는 국내외 목회자와 신학자들의 반응이 뜨거워 편집위원들은 감사와 긍지를 가지고 제2집 편집에 착수했다.

전세계적으로 개교회가 신학학술지를 주기적으로 출판하기는 서울교회가 처음이자 마지막일 것 같다.



11대 집사 및 10대 권사 후보 선출

5월16일(주) 찬양예배 후 공동의회에서

우리 교회는 5월 16일(주) 찬양예배 후 제11대 집사 및 제10대 권사를 각각 60명씩 선출하기 위한 공동의회를 연다.

당회는 4월 28일(수) 임시당회를 개최하여 선출할

수의 1.5배수인 90명씩을 각각 추천하였다. 명단은 다들점자 순 그리고 동점일 경우에는 연령순으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공동의회에 제출케 된다.

< 집사 후보 명단 >

순위	성명	교구	순위	성명	교구	순위	성명	교구
1	서상근	12	31	윤석원	11	61	장윤기	12
2	박정정	15	32	남정열	12	62	김성호	12
3	임광우	4	33	권역만	11	63	전인상	7
4	이길재	14	34	박병욱	10	64	김오른	1
5	박정인	6	35	김민철	5	65	김종우	12
6	김병호	13	36	김영일	8	66	고석태	5
7	안선광	3	37	임범창	5	67	박태업	11
8	강택근	2	38	김권집	12	68	김두일	8
9	한종표	4	39	홍창훈	10	69	김관철	8
10	이인근	5	40	유남식	16	70	정원진	15
11	김정호	12	41	옥종호	6	71	박권준	1
12	임종수	16	42	이성우	3	72	이태승	13
13	서창원	10	43	최원석	13	73	박덕호	14
14	안재선	9	44	오윤걸	1	74	박광래	15
15	박충구	5	45	김규성	10	75	방인석	13
16	오민세	12	46	안현식	1	76	정진문	13
17	양지훈	6	47	신종하	12	77	송영준	11
18	김정길	11	48	오길탁	12	78	박상운	12
19	진교인	13	49	김도훈	13	79	김의동	2
20	강성운	15	50	김종봉	7	80	이강진	9
21	이승준	3	51	강수남	16	81	이경수	2
22	김광철	8	52	정국주	14	82	한종우	10
23	임성용	1	53	김영화	9	83	신태룡	14
24	홍순석	13	54	윤석호	4	84	오병승	1
25	정수환	3	55	류기정	2	85	이선표	16
26	최정환	2	56	조원섭	11	86	송상준	6
27	이우진	1	57	송재현	14	87	양상용	6
28	김용환	3	58	강석조	16	88	이기일	12
29	홍은표	7	59	박종만	14	89	이희민	3
30	지성철	9	60	송영재	11	90	박광욱	3

< 권사 후보 명단 >

순위	성명	교구	순위	성명	교구	순위	성명	교구
1	양정실	15	31	이은자	2	61	이은미2	15
2	우숙인	14	32	서중숙	13	62	이은희3	12
3	김은순	10	33	김경숙	4	63	백정숙	13
4	이미숙	13	34	윤 윤	3	64	오자경	14
5	김연화	1	35	오규자	5	65	박 옥	13
6	박정임	14	36	유성임	14	66	김구진	11
7	전아미	9	37	김애영	1	67	임영숙	14
8	김수원	3	38	이귀숙	2	68	고경순	1
9	이은희7	2	39	전미애	15	69	김보경	13
10	박순복	13	40	구귀순	7	70	김길자	14
11	신선주	3	41	문문순	5	71	강창숙	14
12	최성희	6	42	유묘종	9	72	임인선	12
13	전완진	11	43	윤연미	13	73	김호수	4
14	박정희	11	44	전숙향	12	74	이수현	1
15	박분옥	3	45	김지숙	4	75	김필림	13
16	심상희	8	46	고영숙	3	76	이근의	12
17	최미희	4	47	주성숙	3	77	한은미	3
18	박종숙	14	48	정갑례	11	78	이경실	3
19	임경희	12	49	박영순	7	79	박예신	3
20	박정희	4	50	이영아	16	80	박순단	9
21	박재숙	8	51	김희옥	1	81	홍건표	13
22	이인보	15	52	이경희	13	82	진경자	10
23	김정순	3	53	최영자	5	83	주임옥	1
24	안현숙	2	54	박계순	6	84	양길순	9
25	이기숙	10	55	이기원	7	85	강영진	8
26	김경란	6	56	하옥영	16	86	윤금자	2
27	홍희순	12	57	김순영	3	87	이정임	11
28	김순덕	13	58	이인숙	15	88	이태인	13
29	황혜자	5	59	장오영	2	89	최순례	5
30	김인실	2	60	소만수	3	90	김애순	14

천국시민양성 - 어린이 주일

하나님의 선물, 성환아

사랑하는 아들 성환아!
 하나님 축복의 선물인 사랑하는 아들아,
 이 세상에 갓 태어나 인큐베이터 안에 있던 너를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으며 너를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던 것이 어제 같은데 벌써 여섯 해라는 세월이 지났구나.
 지나온 여섯 해 동안 아빠와 엄마는 우리 아들이 하나님의 축복아래 아름답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며 이 세상 어느 부모보다 더 기쁘고 즐거웠다. 왜냐하면 우리 아들은 이 세상의 그 어떤 생명보다 더 귀중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이란다.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사랑하는 아들 성환이를 축복의 선물로 주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다. 요즘은 너무 어엿한 모습으로 유치부 찬양대원으로 주일예배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아들의 모습을 보면 아빠와 엄마는 너무 행복함을 감출 수가 없구나. 그래서 아빠와 엄마는 요즘 하나님께 늘 이런 기도를 드리고 있다. '하나님, 우리 성환이가 늘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

는 찬양대원으로 살게 해주시고 이 세상 모든 이들에게 하늘의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주세요.'라고...
 그리고 아빠와 엄마는 우리 아들이 이렇처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전해주는 축복의 통로로 꼭 쓰임 받게 되리라고 믿고 있다. 사랑하는 아들아, 오늘까지 아름답게 잘 자랐듯이 계속 하나님의 축복아래 늘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이 땅의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성장하길 이 아빠와 엄마는 늘 기도할게. 사랑한다.

어린이주일을 맞으며
 사랑하는 아들 성환이에게 아빠와 엄마로부터
 박광일 전도사, 이현옥 사모

천국시민양성 - 유아세례를 받고

언약의 자녀, 주하야!

최지옥 집사. 이정현 성도 (12교구)

4월 마지막 주 수요일예배 시간 봄이라고 하기에 추운 날씨였지만 주님의 은혜가운데 저희부부의 믿음으로 주하가 유아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주하가 목사님 품에 안겨 세례를 받을 때 그리 긴 시간이 아니었지만 참 많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귀한생명을 허락해 주셔서 유아



세례를 받는 지금 이 순간이 오래전 주님께서 이미 계획하신 일이라는 것에 너무나 감사했고 주하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자녀임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부모의 신앙고백으로 받은 세례인 만큼 기쁨과 함께 책임감이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주님께 온전히 주하를 위탁하며 신앙의 길을 잘 가도록 최

선을 다해 양육하며 돕는 부모가 되어야겠다 다짐하였습니다.
 주님~우리 주하를 올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고 느끼며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물러서지 않는 자가 되게 하시고 모든 일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소서!
 "사랑하는 주하야 너의 삶이 다 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을 저버리지 않길 바란다."

천국시민양성 - 유아세례를 받고

축복의 통로, 예나야

오유록 이주현성도 (독일)

우리 가정에 '축복의 통로'로 태어난 귀한 사랑 예나야!
 유아세례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새 사람으로 거듭남을 축하한다. '예나' 이름 석자가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된 4월 28일 오늘은 3년전 아빠와 엄마가 본 교회인 서울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렸던 날이기에 더욱 큰 의미로 다가오는구나.
 독일에 살고있는 우리 가족을 때에 맞춰 본교회로 인도하시어 이종운 담임목사님을 통해 세례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세세하신 계획하심에 다시한번 찬양의 감사를 드린다.



예나가 태중에 있을 때 아빠와 엄마는 너의 한글 이름을 짓기에 앞서 레아(Leah)라는 영어이름을 먼저 지었다.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 후대의 어머니가 된 성경 속 여인 '레아'처럼 우리 딸도 온전할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였지.
 또한 예수님의 가르침을 본받아 '받은사랑'보다 더 큰 사랑을 타인에게 베풀며 살아가는 어여쁜 딸로

성장하기를 바라는 소망도 담겨있다. 하나님께서 예나의 중심에 거하시어 반드시 그렇게 빛여주시리라 아빠 엄마는 굳게 믿는다.
 아빠 엄마는 늘 예나의 곁에서 믿음의 동역자요 후원자로서 '본'이 되도록 노력할게. 우리 멋진 믿음의 가정을 함께 이뤄가자. 'oh! <예>수님은 <나>의 사랑'이라는 뜻을 가진 예나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한다.

한장총 대토론회

아시아를 넘어 세계교회를...

한국장로교총연합회(이하 한장총) 발전을 위한 대토론회가 지난 29일(목) 오전 11시 아가페 타운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오는 7월 10일에 열릴 '장로교의 날' 설명회를 겸한 것으로 장로교 27개 교단 대표가 참석하였다.



많이 참여하여 장로교 미래를 지향하도록 하며 한편 한국에 장로교회의 지도력 강화를 중점으로 하고 있다.

오찬 자리에서 이종윤 목사님은 한장총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WRF(World Reformed Fellowship) 참가보고를 하시며 방향을 상실한 세계교회에 대단한 유감을 표하며 한국교회가 복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세계 교회에 영향을 미치고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 일에 특히 한장총이 모범을 보이므로 교단이 하나가 되어 신앙정체성을 가지고 세계교회를 이끌어가자고 하였다.

토론회에 앞선 경건회에서 이종윤 목사님은 새로 번역된 주기도, 사도신경의 번역 배경을 설명하시며 모든 한국교회가 새번역을 사용하므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다. 새번역안은 대한예수교 장로회(통합) 87회 총회에서 기존의 주기도와 사도신경 가운데 잘못 번역된 부분을 바르게 번역하여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리기로 결의한바 전문위원 9명을 구성하고 62명의 연구위원이 참여하여 2004년 12월 3일 최종안을 내어 놓은 것이다. 이 목사님은 새번역안의 번역 과정을 설명하시며 한국교회가 교단을 뛰어넘어 통일된 주기도와 사도신경을 사용할 수 있도록 힘쓰자고 했다.

이 날 토론회는 오찬 후 '2012년 한국장로교 100주년을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한장총 발전을 위한 정책'의 두 가지 주제를 가지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이 목사님은 토론회 후 CTS 기독교 TV와 가진 회견에서 다시 한 번 장로교의 연합을 강조하며 오는 7월 10일에 열릴 장로교의 날에 관련하여 한국장로교가 바른 신앙정체성을 가지므로 충분히 하나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이어 '장로교의 날' 준비위원회는 오는 7월 10일에 열릴 2010년 장로교의 날 행사 개요를 설명하며 칼빈 탄생 500주년 기념행사로 작년에 처음 열렸던 제 1회 '장로교의 날'이 장로교 연합이라는 커다란 의미를 남겼다면 올해는 '성숙한 장로교'라는 목표를 구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연합과 일치를 통해 2012년 한국장로교 100주년을 준비하는 대회이기도 한 이번 행사는 특히 젊은이들이

가장 어두웠던 일제 강점기에 빛 되신 복음을 받고, 6.25전쟁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은 한국교회가 이제는 아시아를 넘어 세계교회를 섬기고 향도하여 하나님 나라 확장에 크게 쓰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한다.

허숙 권사(편집부)



안성의 집사(9교구, 시인)

피아니스트를 꿈꾸는 네 손가락
밤 낮 흐르는 연주소리는
그칠 줄 몰랐다.

마음을 울리는 하늘의 소리
모자란 손가락은
예수님의 뚝이었다.

로키산을 향한 의지의 한걸음
꿈을 향한 땀방울은
그칠 줄 몰랐다.

마음을 흐드는 하늘의 모습
두 다리는
예수님의 뚝이었다.

꿈은
하늘로 향해 오르는 나무처럼
비바람이 불어도 자란다.

예수님의 사람은
들판에서 푸른 꿈을 꾸다.
하늘을 향한 꿈은
늘 푸르다.

예수님의 사람은
희망을 노래하며 꿈을 꾸다.
어둠을 밝히는 꿈은
늘 빛난다.

예수님의 사람은
꿈이 있어 행복하다.

※ 네손가락의 피아니스트 회야
※ 세계 최연소(8세)의족으로 로키산맥을 등반한 세진이

교구자랑

열정과 순종의 4교구



박민숙집사 (4교구)

4교구는 현재의 대치동 교회를 건축하고 완공(입당예배 기준 2000.12.25)하여 이사하기 전 서울교회가 시작되었던 논현동 시절(1991.11.~1994.05)을 거쳐 반포동시절(94. 05~2000.12)까지 서울교회를 담당 지역안에 두었던 교구였습니다. 대치동으로 이사한 후 교구 구성원의 변화도 있었고 담당지역도 다소 변동이 있었지만 아직도 대다수 교구식구가 서울교회 초창기의 History(주님의 역사)와 열정을 기억하며 비록 거리상으로는 교회와 다소 멀어졌지만 주의 몸되신 교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데에 있어서 전 교구 가운데 1등을 놓치고 싶어 하지 않는 욕심 많은 교구(우후후!)입니다.



고추씨를 교구식구들이 둘러앉아 일일이 수작업으로 빼내는 교구, 흥해작전 기간 중 매일 문자메시지로 새벽예배 참여를 강권(?)하는 교구, 전도를 통해 교구인원을 확대하려고 4개월간 30여 차례나 신규아파

트 단지에 저녁마다 전도지를 배포한 교구, 김치세미나에 참여한 프랑스 목회자들과 언어의 장벽을 넘어 찬양으로 화답하며 교구찬양대회에서의 의상을 재연하여 싸인펜으로 유니폼에 서로에 대한 감사와 축복의 메시지를 교환했던 교구, 역시 무언가 다르다는 평을 늘 듣고 싶고 다소 튀고 싶어(?)하는 교구.... 무엇보다 더 감사드리고 은혜로운 것은 저희 교구야말로 활발한 다락방 교제를 통해 여러 세대가 어우러져 신앙의 계대가 축복의 통로처럼 실시간으로 흐른다는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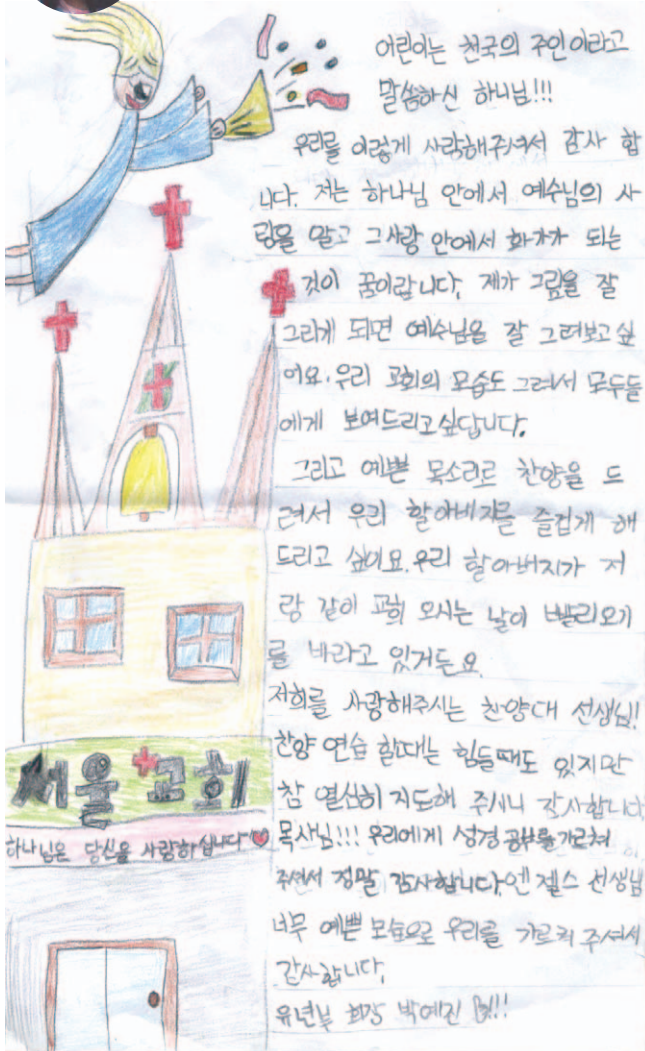
금요 기도회 교구별 특송을 꼭 헌성4부로 드려야만 하는 교구, 교구별 찬양대회 준비를 수개월 전부터 '은밀히' 진행하는 교구, 찬양대회 연습에 90세가 다되신 권사님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시는 교구, 바자회가 되면 금액으로 뿐 아니라 품질로도 1등을 하려고 수백 근이나 되는

서울교회와 그 역사를 같이하며 순종과 섬김의 사역을 몸소 실천하신 앞선 세대의 모습을 보며 자란 저희 세대들은 4교구의 전통을 이어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순종과 섬김위에 열정과 도전을 덧붙여 다음세대를 위해 준비하고자 합니다. 요즘은 다가올 5월의 교구 찬양대회를 준비하는 매주 목요일 저녁을 모든 교구 식구들이 즐거운 마음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꿈이 참 많아요



박예진 (유년부 회장)



김장겸 (유년부 1학년)

저는 판사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입니다. 저는 사람들이 나쁜 일을 당하거나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옳은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TV 뉴스에서 판사를 보았습니다.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저의 할머니는 법을 공부하셨었는데 저에게 판사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판사가 되면 좋은 일을 많이 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판사가

되면 어려운 일을 많이 해야 하고 될 수도 없지만 제가 판사가 되면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일을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판사는 공부를 많이 해야 하고 또 잘해야지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부터 매일매일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숙제를 열심히 하고 공부도 열심히 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엄마, 아빠, 선생님 말씀도 잘 따르기로 했습니다. 저의 꿈이 이루어지는 것을 지켜봐주세요.



정건 (유년부 3학년)

하나님! 저는 꿈이 참 많아요. 축구선수, 야구선수, 골프선수가 되고 싶기도 하고,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요리사가 되고도 싶어요. 그리고 아픈 사람을 고쳐 줄 수 있는 의사도 되고 싶어요. 하나님 저는 커서 어떤 일을 하게 될까요? 지금은 내가 좋아하는 축구나 야구, 달리기를 하며 친구들과 노는 것을 더 좋아해서 내가 커서 무엇을 해야 할지 더 깊이 생각해본 적이 별로 없거든요. 운동선수가 된다면 훌륭한 선수가 되어 하나님 이름을 나타내고 저로 인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생겼으면 좋겠

어요. 요리사가 된다면 맛있는 음식을 붙잡힌 사람들에게 대접하고 싶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음식을 먹고 행복해지고 영원한 생명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게 되면 좋겠어요. 그리고 의사가 된다면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에 가서 병을 고쳐주며 하나님을 전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 꾸는 꿈이 이루어질지 아니면 또다른 꿈이 생겨서 다른 일을 하게 될지 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영광받으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정건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사랑해요



이태준 (초등부 4학년)

나의 꿈은 너무 많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커서 무엇이 될지 너무 고민이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경찰이나 소방관이 되고 싶었지만 지금은 개그맨, 요리사, 마라톤 선수가 되고 싶습니다. 학교 친구들은 제가 너무 잘 웃긴다고 개그맨이 되라고 하고, 저는 아무거나 맛있게 잘 먹어서 직접 요리하는 것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 전에는 학교 체육대회에서 오래달리기 선수로 상을 받아서 마라톤도 해볼까 고민 중입니다.

그런데, 아빠께서 '우리 태준이는 기도도 잘하니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될 수 있겠다...' 라고 말씀하셔서 고민이 또 늘었습니다. 우리 형은 탐정이나

의사가 꿈이라서 둘중에 하나만 고르면 되는데, 저는 왜 이렇게 꿈이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고민하는 것을 보고 아빠께서는 꿈은 꼭 하나만 선택할 필요는 없고 한꺼번에 할 수도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를 들어, 개그맨처럼 재미있는 요리사! 요리도 잘하고 마라톤하는 목사님!... 등이 훨씬 더 멋있어 보인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꿈이 계속 바뀌는 것도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하고 싶은 것이 많은 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많이 사랑하셔서 축복해주셨기 때문이랍니다.

이제는 이렇게 꿈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고 지금은 공부 열심히 하고 기도만 잘하면 하나님께서 저의 꿈을 결정해 주실 거라고 믿어요. 제가 나중에 커서 지금과 다른 꿈이 이루어지더라도 그 꿈이 하나님께서 저에게 맞는 좋은 꿈일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 부탁드려요...

나의 하나님

천사들의 찬양

김지현 성도
(유년부 지휘자)

5월 어린이주일 특별찬양을 위한 유초등부 연합찬양대 오디션을 보는 3월 첫주의 702호실은 긴장감이 팽뽕했습니다. 오디션을 보러 온 어린이들이 한명씩 앞으로 나가 자신 있게 부를 수 있는 찬양 1곡을 골라서 부르기 시작하였습니다.

찬양대의 어린이들은 40명의 어린이가 정말 하나도 비슷하지 않고 각자의 개성이 있습니다. 선생님이 가르쳐 준대로 곧잘 따라 배우는 푹푹이 어린이, 연습 시간 중간 중간 옆 친구와의 종알종알 속삭임이 더해



미있는 수다쟁이 어린이, 쉬는 시간이면 연습실을 거의 날아다니다시피 뛰어다니는 슈퍼 개구쟁이들..이렇게 제각각인 어린이들 40명이 모여 자유 시간을 가지면 소리치며 뛰어노는 소리가 온 서울교회를 울리며 시끄럽게 할 때도 있지만...^^ 일단 찬양 연습이 시작되면 어떻게 그렇게 고운 하모니가 만들어지는지 아이들의 소리를 하나로 만들어주는 찬양의 힘에 지휘를 하는 순간마다 깜짝 놀라며 마음에는 감동과 뿌듯함이 들기도 했습니다.

연습하는 2달 내내 한번도 빠지지 않으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여준 아이들에게 고마움과 보람을 느꼈

특별찬양

오늘 찬양예배의 특별찬양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유년.초등부의 연합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김지현 선생(유년부찬양대의 지휘)과 유수진선생(초등부찬양대 지휘)의 반주로 유년.초등부 연합찬양대(주하민외 39명)가 '우린 모두 주님의 자녀(Peter and Hanneke Jacobs)' 외 두곡을 드린다.

고 부족한 실력이지만 아이들이 즐겁게 찬양할 수 있도록 가르칠 수 있는 은사를 베풀어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월의 연두빛 새싹을 닮은 우리 유초등부 연합 찬양대와 함께, 어린이가 주인공인 어린이 주일날 올해도 주님께 영광 돌려드릴 찬양을 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리고, 얼마나 귀하게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을지 기대가 됩니다.

만민에게 전도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



박정임 집사 (70인 전도대 차장)

할렐루야!

사망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영혼구원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70인 전도대는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막 16:15)"는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받들어 하나님 나라 확장과 주님의 몸 된 서울교회 부흥을 꿈꾸며 준비된 영혼들을 만나기 위해 오늘도 세상 속으로 달려갈 70인 전도대원들!

전도는 은사가 아니라 사명임을 알기에 또한 전도는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것을 알기에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한 결 같이 전도에 열정을 품고 나아가는 우리 대원들. 박노철 목사님을 통하여 영의 양식인 말씀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며 복음이

기에 말씀 위에 기도하고 성령 충만한 자가 전도하는 것을 다시금 깨닫는 시간이었습니다. 또한 열정적인 찬양과 뜨거운 기도로 저희들을 이끌어 주신 장석남 목사님을 통해 몸과 마음과 영과 혼이 하나가 되어 다시금 새롭게 거듭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70인 전도대는 장석남 목사님의 지도 아래 6개의 전도팀과 전도대가 전도할 수 있도록 도고 기도하는 3개의 기도팀, 문서 전도팀으로 10개의 팀이 구성되어 있으며 전도사명자들을 확보하기 위한 양육 프로그램으로 전도학교와 전도폭발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교회의 본분은 전도이고 성도의 본분도 전도이기에 70인 전도대를 통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전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서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도합니다.

동정

- 이종윤 목사는 4일(화) 한장총 산하 교단의 젊은 목회자들의 대표회장기 추경대회를 개최한다. 46회 서울 강남노회에 참여하고 6일(목) 한국 로잔 월례회 7일(금) 한장총 임원회를 각각 소집한다.
- 박광일 전도사(디아스포라부 지도) 목사 안수식 : 5월4일(화) 오후4시 소망교회 : 북한의 김형직 사범대를 졸업 후 고등학교 교사 재직 중 1998년도에 탈북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목사의 소명을 받고 장로회신학대학교 신대원(M. Div.) 과정을 졸업하고 2008년 8월4일 목사고시에 합격하였다.
- 수상 : 류기정 집사(2교구, 이곡읍 권사 부군) 4월29일 국가 신기술 발전 공로로 산업포장 수상
- 전시회 : 진현미 성도(6교구) 5.7~6.10 Alive, its illusion 두산아트스퀘어
- 주간식당 봉사 : 제1권사회(5월 2일) 제2권사회(5월 9일)
- 금주의 식사 : 윤성열 성도 홍혜진 성도 가정 (장례를 은혜 중에 마치고) 최지옥 집사 이정현 성도 (유아세례를 은혜 중에 받고)

■ 예배 및 집회

구분	시 간	
주 일	I 부	오전 9시
	II 부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주일 오후 5시	
영 어 예 배	주일 오전 11시20분	
수 요	I 부	오전 11시
	II 부	오후 7시
금요기도회	오후 8시30분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화요정오음악회 5월 4일(화) 정오- 차주연 오르간 연주회



차주연 / 오르간

- 총신대 교회음악과 졸업
- 한양대 음악대학 대학원 석사 졸업

- Arizona State University 대학원 석사
- Arizona State University 대학원 박사
- 현재, 서울장신대학교 출강
- 서울교회 오르가니스트

서울 주간기도

● 주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

1.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서울교회 어린이들을 위해.
2. 37학기 목회자 세미나, 27학기 서울성경대학 위하여
3. 세계에 흩어져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위해
4. 북한의 군사적 도발 중단되고 복음화된 통일조국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 교회외시는 길

